

# 국민의당 의석 17석 확보…원내교섭단체 구성 ‘-3’

## 천정배 이어 박주선 합류

27일 국민의당(가칭)이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과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17석의 의석을 확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이달 말이나 창당 예정일인 다음달 2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주승용 의원은 “최재천 의원 등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며 “교섭단체구성은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창당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된다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실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당의 위상과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면 9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제3당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민주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 주요 법안이나 정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 박지원·최재천 행보 관심속

## 수도권 의원 물밑 접촉 활발

## 내달 2일 창당 전 구성 촉박

며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등 당의 위상이 달라진다.

반대로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면 국민의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30억여 원에 그치게 되는 것은 물론 당의 위상 저하 및 지지율 하락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 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노웅래, 심재권, 민병두, 정호준 의원 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소 1~2명 정도는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류와 탈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에게도 합류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의 박해자 의원과 전남의 김영록·이재호 의원이 27일 저녁 국민

의당 김한길 의원과 만찬 회동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해자 의원은 김한길 의원의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활동했었고 이재호 의원은 국회 진입 과정에서 주승용 원내대표의 측면 지원을 받았었다. 김영록 의원은 탈당한 박지원 의원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그동안 지역 민심을 명분으로 잔류와 탈당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초반 기세 싸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더민주에서는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및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잡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정대철 교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에게 비서실장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며 “연세 통합에 따른 내부 교통신리와 공천 룰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마냥 좋아할 수 만 없는 오늘의 설경



(142) 설국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

소설의 첫 문장만으로도 기억 속에 오래도록 새겨질 가와바다 아스나리(1899~1972)의 소설 ‘설국’은 이렇게 시작된다. 작품 속 배경을 직접 가보지 전까지 “같은 일본 땅일 텐데 ‘국경의 긴 터널’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수년 전, 니가타현 유자와를 가기 위해 10km가 넘는 시미즈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걸 보고 정말로 국경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소설 속 ‘설국’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었다.

지난주가 그랬다. 내리고 또 내리는 눈으로 남도 땅은 ‘설국’이 되었고, 하늘과 지상과 바다는 공중 얼어붙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눈 덮인 백색의 산하는 그렇게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었다.

동서고금의 많은 화가들이 화폭에 겨울 이야기를 풍부하게 묘사해 온 것을 보면 화가들에게도 겨울 풍경은 반가운 모티프였던 것 같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아카데미한 구상화풍의 작품 세계를 일관되게 보여 주었던 화가 양인옥(1926~1999)의 설경 예찬도 유명하다. 설경에 취해 겨울 산야를 누비고 다니면서 스케치하느라 눈발의 강력한 자외선 반사광에 의해 시력이 손상되기도 했을 정도였다.

작품 ‘동북(同福)’(1994년 작)은 화가가 만년에 화순 동북에 집을 짓고



양인옥 작 ‘동북’(1994년 작)

그림을 그렸던 마을의 겨울 풍경이다. 소담하게 내린 눈은 마을 뒷산을 하얗게 칠해 병풍처럼 세워두고, 마을과 집과 나무도 겨울 적막 속에 갇혀 있다. 청회색조의 눈빛이 겨울 햇살에 반사된 듯 눈부시다.

호남대 미대학과 총장을 역임하는 등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던 화가는 누드를 통해 인체의 순수미를 추구해 온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관능미만을 연상하기 쉬운 여체를 성스럽고 아름다운 대상으로 혹은 원초적인 자연의 일부로 묘사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통합신당을 이끄는 박주선 의원(가운데)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하며 안철수 의원(왼쪽부터),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윤여준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김한길 의원과 함께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녹취록 파문 진심으로 송구”…낙상 이희호 여사 문병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의원이 27일 이희호 여사 예방 당시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큰 결례를 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날 한상진·윤여준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신

촌세브란스병원에 낙상으로 입원 중인 이희호 여사를 문병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이 여사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빨리 회복을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고, 이 자리에서 녹취록 논란이 언급됐는데에 대해서는 “이 여사께서 그에 대해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 창준위 관계자는 녹취록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녹취록 작성가

지만 확실하게 확인했고 유출 경위는 본인들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사께 큰 결례를 했고 누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전날 녹취록 작성 경위를 파악한 뒤 이 여사 측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녹취록을 작성한 관계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재인 대표 사퇴…김종인 비대위 출범

### 더민주 총선체제 본격화…박영선·우윤근·표창원 등 7명 비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종인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공식 사퇴하고 평당원이 됐다.

이로써 지난 14일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김 위원장은 13일 만에 선대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 당무의 전권을 쥐고 4·13 총선전을 전두지휘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선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최고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 비대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박영선 전 원내대표, 우윤근 전 원내대표, 변재일 의원, 이용섭 전 의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 후 탈당 행렬

이 주춤하고 당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힘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곧이어 진행될 공천 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김 위원장은 공천을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표가 공천안을 만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공천안 사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투톱’체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후보단일화 등 야권 연대나 통합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야권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천정배·박주선 의원 등 호남 신당 파가 결합하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양측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참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단일화라는 것은 선거 막판에 가서 얘기할 문제”라며 선(先) 자강론을 내세워 외전상 야권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더민주와의 연대는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연대가 야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퇴 후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표를 하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호남 의원들의 탈당과 분열이었고 우리 당의 심장인 호남 유권자들의 실망과 좌절이었다. 쓰라린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다 제 책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제 사퇴를 계기로 노여움을 풀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중앙위원회에서 “지역정서에 기반 분열은 정권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고, 무능하고 무도한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일”이라며 신당파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고흥에는 건강한 맛이 있다

깨끗한 바다, 건강한 토양,  
정직한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져  
고흥에서는 365일 건강한 먹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고흥청정마켓

www.goheungmarket.com  
1577-8793